

# 첫발 뗀 2·4공급대책… 재산침해·주민불만 ‘첩첩산중’

정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방침  
2~3개월간 집중 설명회 개최 예정  
홍 부총리 “체계상 현금보상 원칙”

정부가 신규공공택지 2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발표 일정을 밝히는 등 2·4 공급대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전까지 대책 실현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2·4공급대책 가속화, 설명회 등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신규공공택지 25만가구 후보지를 2분기 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록하겠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체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표한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준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현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정비사업 지역 주민 불만 증폭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조합 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쪽방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4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신규공공택지의 상반기 중 지정,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확정 및 3기 신도시 적용,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서울 32만가구, 전국 80만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모순이다”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비대면으로 주주친화 정책 강화… 재계, ‘3%룰’ 첫 적용에 긴장

## 국내 주요기업 주주총회 준비

**삼성전자** 언택트 참여 방법 마련  
**LG그룹** 전자투표제 전면 도입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3%룰’ 활용  
**한국엔컴퍼니** 이사진 재선임 관심

코로나19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고 정기 주주총회를 준비 중이다. 비대면 행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3% 룰이 처음 적용되면서 경영권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영권 갈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삼성전자가 2019년 제50기 주주총회를 열고 소액주주들 목소리를 경청했다. /삼성전자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주주총회 /손진영기자 son@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신”으로 통화성공률 향상 UP**

**▶지원자격 :**  
- 신입 / 경력  
- 교육경우대(직접장소보장)  
**▶담당업무 :**  
상담·통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지원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더프리미엄빌딩 23층 신한 용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본적이 없는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 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당첨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해드려 소득증가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져도 꾸준히 하면서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고등학생, 대학생 2학년 학자금(연4회)  
- 1~18개월까지 청탁여지지원  
- 매년 적립금 지급제로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 월300~400만원대  
- 상위평균 : 업계최고 고소득발생  
※ 수입은 내가 담고싶은 만큼 담는 능력제라 출습니다

**4. 다른 회사도 같은데 신한카드를 선택해야하는 이유는요?**  
신한카드 마케팅 등의 고려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斷하고 가치를 시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달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52기 주주총회를 실시한다. 당초 코로나19에 정상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결국 예년과 같이 진행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 전자투표제뿐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를 새로 도입해 언택트 참여 방법도 마련했다. 연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주총과 방역 모두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SDI와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도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주총을 중계하기로 했다.

LG그룹 계열사들도 올해부터 전면

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참여 방법을 열었다. 이미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은 지난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황, 올해에도 이를 이어가며 현장에서도 주총을 개최할 전망이다.

주총은 수많은 주주들이 한 데 모이는 자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중에도 문제 없이 열릴 수 있는 이유는 인원 제한 예외 사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방역 조치만 지키면 정기주총을 예년대로 열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었다.

LG그룹 계열사들도 올해부터 전면

하지만, 재계의 ‘주주 친화’ 정책도 개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주총이 연중 가장 큰 주주들을 위한 자리인만큼 개최 의지가 컸다는 것.

올해 해결해야 할 안건이 크기도 하다. 지난해 상법이 바뀌면서 이를바 ‘3% 룰’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룰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기준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면서 대주주의 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칫 악의적인 주주가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삼성전자는 김선욱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별도로 내놓은 상태다. 현대차와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감사위원을 사외이

사나 외부에서 새로 뽑을 예정이다.

재계는 일단 그렇다할 위협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개편을 진행중으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기업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LG그룹은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에 계열분리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주총에서 구본준 고문을 대표로 하는 신설지주 분리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3% 룰이 경영권 분쟁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박철완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거쳐분 신청을 내면서 이번 주총에서 한판 승부를 예고한 상황, 3% 룰을 이용해 대주주의 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회 입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엔컴퍼니도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양래 명예회장에 지분을 물려받아 경영권을 거머쥔 조현범 사장과 남매인 조현식 부회장·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선임해야하는 이사진을 두고 다툴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김재웅기자 juk@

##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SC’ 프랑스서 첫 처방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럽 주요 5개국 등 판매 확대 시동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피하주사제형 바이오의약품 ‘램시마SC’가 프랑스 시장에 첫발을 들이며 유럽 시장 선점에 시동을 건다.

다음 달까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장해 상반기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등으로 출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직접 판매(직

판) 중인 ‘램시마SC’가 프랑스에서 첫 처방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유럽 판매 확대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달 초 프랑스에 ‘램시마SC’를 출시한 이후 지난 11일 현지 언론사를 초청해 ‘램시마SC 롱칭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사 층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사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램시마SC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롱칭 첫 날

부터 램시마SC 처방이 이뤄지며 현지에서 긍정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 연합인 유니하(UN IHA) 입찰에서 인플릭시맙 수주에 성공하며 ‘램시마IV’를 공급을 확정했다. 유니하는 프랑스 인플릭시맙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의약품 치관 인프라를 통해 거둔 성과인 만큼

램시마SC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IV제형과 함께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듀얼 포뮬레이션을 강점으로 내세워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유럽 시장 확대에 본격 돌입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에 애어 올 1분기 스페인, 이탈리아에 추가 론칭해 유럽 주요 5개국 제품 출시를 마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벨기에, 포르투칼, 핀란드 출시도 확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